

MY AUNT NORA



FERDINANDO FREGA

나의 Nora 이모

The Art of Attraction · 06

요 며칠 이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. 그녀는 어머니의 이웃이었고, 1963년 어머니를 딸처럼 거두어 주고, 어쩌면 처음으로, 그 누구도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적 없는 것을 주었던 여인이었다. 애정이었다.

나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,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쉬운 판단을 늘어놓는 아들이 아니다. 내 글은 그저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자유로운 연습으로 남는다. 변명도 없이, 아무것도 없이, 마치 내가 별거벗은 임금님인 것처럼.

그리고 이 나폴리 부인은 전형적인 스웨덴 사람의 생김새 — 푸른 눈, 흰 피부, 중간 키 — 를 지녔고, 늘 미소 짓는 데 익숙했다. 그리고 언제나, 달콤하고 마음을 홀리는 목소리와 타고난 재치로, 세상의 이 위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그 방식으로, 생각할 거리를 남겨 주었다. 그녀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?

1985년이었다. 나는 코센차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를 찾아갔다. 나에게 그녀는 Nora 이모였고, 그녀는 나를 다정하게 Ferdinà라고 불렀다. 그녀는 내 누나 Teresa의 대모였다. 어머니가 준 선물이었고, 그녀는 늘 그것을 고마워했으며, 언제나 우리 안부를 물었다.

마지막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일곱 살을 조금 넘긴 아이였는데, 이제 스무 살이 된 나를 보며 그녀는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. 하지만 내가 지닌 인지의 옷감이 어떤 재료로 짜였는지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.

나를 향한 그녀의 애정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고,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, 그녀는 마치 일부러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으려는 듯 자신을 억눌렀다.

그날 오후 나는 그녀의 딸 Lella도 만났다. 치과 의사였고, 어머니의 매력과 아버지의 우아함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.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다. “정말 너니, Ferdinando? 2년 동안 우리 집 맞은편에 살던 그 아이?”

처음에 나는 미소로 대답했고, 그러고 나서 말했다. “네, 저예요.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가장 좋은 버전이요.” 모두가 웃고, 모두가 지켜보고, 그러고는 작별 인사와 떠남,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만난 마지막이었다.

차에 오를 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, 두 층 위 발코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. Nora 이모였다. “Ferdinà, 돌아오렴, 너를 한 번 더 보고 싶구나.”

“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.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. 나의 일은 이미 끝나 있었다.”

진짜 별거벗은 임금님은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머문다. 어머니가 그를 세상에 낳아 놓은 그대로.

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의 아들이었다.

Ferdinando